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54回平昌郡議會

開會式

平昌郡議會事務課

1998年 3月 12日(木) 11時00分 開式

第54回平昌郡議會(臨時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對한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對한默念
- 1. 開會辭
- 1. 閉 式

(司會: 議事係長 全完鐸)

(11時00分 開式)

○ 議事係長 全完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지방자치와 의정발전에 공헌을 해 오시다가 지난 3월 6일자로 공직을 떠나신 신교선 전 전문위원님에 대한 표창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창패, 의회 전문위원 신교선, 귀하는 평창군의회의 개원과 함께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 10개월 동안 본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회의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표창합니다.

1998년 3월 12일 평창군의회의장

(표창패 전수)

다음은 이상훈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李相燾 :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 6.27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제2대 평창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신뢰와 자율의 바탕위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책임과 봉사를 다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의 급등,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 물가의 상승 등 사회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제 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

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IMF의 지원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나 행정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시책을 현장의 문제 중심으로 해결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업군으로서 지역의 특화사업 및 시설원예농가, 양축농가의 애로 타결, 지역물가안정 관리대책 마련, 추진사업의 조기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하루 동안의 짧은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평창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속에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군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마다 뜻하신 소망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副郡守 金在君 : 존경하는 이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강원동계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5일자로 평창 부군수로 부임한 김재군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랐고, 또 64년 이곳 평창읍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와 고향을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중책을 맞게 되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저의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도 최
대한 협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事係長 全完鐸 : 이상으로 제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11時15分 閉式)